

 국토교통부		<b>보 도 자 료</b>	
		배포일시	2017. 7. 12(수) / 총4매(본문2매)
담당 부서	자동차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조무영, 사무관 고성우, 주무관 유건영 • ☎ (044) 201-3843, 3844
보 도 일 시		2017년 7월 13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인터넷은 7. 13.(목) 06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재규어랜드로버, 볼보 리콜 실시(총 6개 차종 339대)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2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승용자동차 총 6개 차종 33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(리콜)한다고 밝혔다.
- (주)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재규어 F-PACE 등 5개 차종 260대의 차량은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.
  - 재규어 F-PACE 등 3개 차종 256대는 연료리턴호스\*의 두께가 규격보다 얇게 제작되어 균열이 발생 경우, 연료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.
- \* 연료리턴호스 : 엔진에 공급되고 남은 연료를 연료탱크로 다시 돌려보내는 장치
- 레인지로버 이보크 등 2개 차종 4대에서는 연료탱크와 연료펌프를 고정시키는 부품이 올바르게 조립되지 않아 연료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.
- 해당차량은 7월 14일부터 (주)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(해당부품 교체, 해당부품 재조립 등)를 받을 수 있다.

□ (주)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볼보 XC90 79대는 3열 우측 안전띠 텐셔너\*의 내부부품이 사고발생시 튀어나와 탑승객에게 부상을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.

\* 안전띠 텐셔너 : 정면충돌 시 빠른 속도로 안전벨트를 승객의 몸쪽으로 조여주는 장치

○ 해당차량은 7월 14일부터 (주)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(해당부품 교환)를 받을 수 있다.

□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,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합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.

○ 기타 궁금한 사항은 (주)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(재규어 : 080-333-8289, 랜드로버 : 080-337-9696), (주)볼보자동차코리아(02-1588-1777)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합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합정보를 수집·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(www.car.go.kr, 080-357-2500)를 운영하고 있으며,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합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.

○ 아울러,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'리콜알리미 서비스'를 받을 수 있다.

※ <참고1> 리콜 대상 자동차

제작사	차명(형식)	결함장치	제작일자	대상대수
(주)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	XE	연료 리턴 호스	'17.02.23.~'17.04.06.	97
	XF		'17.02.27.~'17.04.06.	9
	F-PACE		'17.02.20.~'17.03.22.	150
	디스커버리 스포츠	연료 탱크 내 연료펌프 고정부품	'17.03.02.~'17.03.07.	1
	레인지로버 이보크		'17.03.02.~'17.03.07.	3
	<b>소 계</b>			
(주)볼보자동차 코리아	XC90(디젤, 가솔린 엔진사양)	3열 우측 안전띠 텐서너	'16.09.23.~'16.11.08.	79
	<b>소 계</b>			<b>79</b>
<b>총 계</b>				<b>339</b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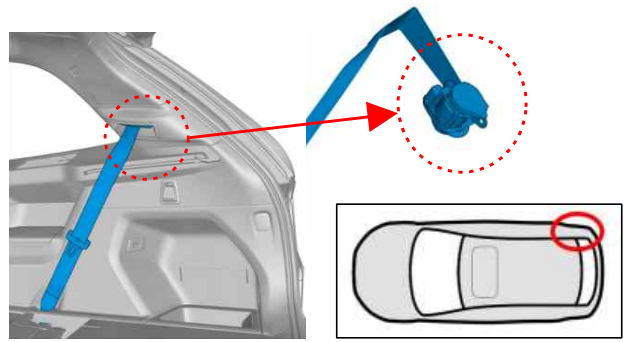
※ <참고 2>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

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(주)	
	
F-PACE	연료 리턴 호스
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(주)	
	
레인지로버 이보크	연료탱크 내 연료펌프 고정부품

(주)볼보자동차코리아



XC90(디젤, 가솔린 엔진사양)



3열 우측 안전띠 텐서너

\* 해당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실제 자동차와 다를 수 있음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고성우 사무관(☎044-201-384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